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 마음의 마스크 너머로

마스크 덕분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합니다. 꼭 필요한 마스크임에도, 때론 갑갑하고, 상대방의 입모양과 표정을 알아채기 힘들어 불편합니다. 더 아쉬운 건, 마스크와 함께 서로의 마음이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거리두기가 점점 익숙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몸의 건강은 마스크가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다, 서로의 온기가 꼭 필요한 마음 건강은 조직(정밀) 검사가 필요할지도 모를 요즘입니다.

오늘 복음, 요한의 말에서도 마스크에 가려지는 부위가 얼굴뿐만이 아닐 수 있겠다는 묵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누군가가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신 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었다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막아보려 합니다.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던 그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고, 공동체의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막아서려 했던 제자들의 판단은 마음의 마스크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만의 안전(건강)을 위한 KF94! 하지만 그 마스크로 인해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마음(뜻)이 제자들에게 가려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팎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기(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온몸에 마스크를 두르고 있을지언정 결코 마음의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비단 감염병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곳곳에서 신앙의 이유가 아닐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의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체험과 생각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구원 신비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설마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하는 판단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면, 구원의 신비는 도처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마스크 너머로 우리의 존재를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해 봅니다. "부디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 있게 되기를 바라"(프란치스코 교황, 107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며 하느님께 서 우리 마음의 마스크를 친히 벗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동영 아우구스티노 신부 | 교포사목(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제 1 독 서 민수 11,25-29  
화 답 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네.  
제 2 독 서 야고 5,1-6  
복 음 마르 9,38-43,45,47-48

주일 진레

#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 함께 걸어 나갑시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와 더불어 9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정하고 이주민과 난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기억해 왔지만, 이 명칭은 그 본연의 뜻을 신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는, 9월 마지막 주일이 ‘이주민’만을 위한 날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종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을 떠나 있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자매이기에 미래를 향하여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사회적 약자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교구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향한 형제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고자 노력하면서, 아울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이며,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려움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에 가려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사건들이 있습니다. 섬에서 짐승처럼 부려지다가 탈출한 한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혹한의 추위에 동사한 캄보디아 여성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 대우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목숨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어려운 현실과 고통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관과 단체가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다가옵니다.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레위 19,33-34)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면 좋겠습니까? 올해 제107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당신의 회칙을 인용하며 하신 말씀을 새겨 봅니다. “보건 위기가 지난 뒤에 최악의 반응은 열광적 소비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이기적 자기 보호에 더욱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모든 형제들, 35항) 이는 더욱더 넓은 ‘우리’를 지향함으로써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로지 ‘나’만을 위하고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폐쇄적인 편협함에서 벗어나자는 호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또한 교황께서는 ‘우리’라는 의식에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교황께서 호소하시는 더욱더 넓은 ‘우리’는, 보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더 넓은 ‘우리’는 인류를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맺고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 교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사순 시기부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과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 운동의 하나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다만 어느 한 나라에서 잦아든다고 해서 종식될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전 세계 인류와 함께 이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백신 나눔 운동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형제적 사랑’입니다. 이 ‘형제적 사랑’으로 이주 노동자들은 물론 난민들을 ‘우리’ 안에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이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넓은 ‘우리’를 알게 해 주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주민과 난민이라는 말에는 다양성이 있고, 이 다양성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다양성을 존중할 때, ‘형제적 사랑’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구분될 수 없고, 어떤 차별도 없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더 넓은 우리를 삶으로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2021년 9월 26일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

#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일까? : 그리스도인의 영적 동굴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여기에 지하 동굴이 있다. 동굴 속에는 죄수가 갇혀 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인 채로 동굴 벽만 보고 산다... 죄수의 등 뒤 위쪽에 햇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는 햇불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고 산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첫 대목이다. 동굴에 사는 속박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데아(Idea)의 ‘그림자’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다. 플라톤은 세상 만물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고 동굴 밖에 진짜가 존재하며 인간은 그 실체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에 갇혀 있는 죄수는 바로 우리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과연 동굴에 갇혀 허상을 쫓고 있는 죄인들일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할까? 동굴 밖에 참된 세상이 존재하는 걸까? 하느님께서 왜 이 그림자 같은 세상에 당신 아드님을 보내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동굴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 세상살이도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리 아등바등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방 수도승의 아버지, 베네딕토 성인은 이탈리아 수비아코 동굴에서 3년 동안 은둔생활을 한 후,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탈리아 라 베르나 동굴에서 홀로 기도와 고행을 하던 중 “예수님의 오상”을 받게 되었다. 로올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스페인 만레사의 동굴에서 수개월 동안 극도의 고행과 기도를 한 후, 온전히 변화되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왜 동굴로 갔고, 동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동굴은 자신이 과거 추구하고자 했던 세속이라는 그림자를 버리고 하느님을 찾는 생활을 하는 상징적 장소이다. 동굴 속에서 고행과 기도를 하는 동안 그들은 내적 공허, 낙담, 지루함, 영혼의 무감각, 절망, 우울, 세속의 유혹 등으로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며 거짓 자아와 투쟁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와 정화를 위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동굴에서 그 모든 힘겨움을 견디어 낸다. 그리고 영적인 재탄생은 선물로 주어진다.

이러한 성인들의 영적 동굴과 플라톤의 동굴은 “깨어나거나 자각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하다. 세속의 허영과 그림자를 쫓으면서도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던 성인들은 동굴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속이라는 그림자의 동굴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자신이 그림자의 동굴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진정 동굴 밖으로 나와 새로운 참된 세상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영적 동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들에게 동굴은 실제로 동굴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내면의 동굴이요, 동굴 밖 세상 속에서 참된 실체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정화의 동굴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면에서 만난 하느님은 이데아처럼 도달하기 힘든 이상(理想)으로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느님, 모든 것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이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동굴은 과거에 자신이 그림자만을 보아 왔던 그 세상이 바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깨닫게 해 주는 곳이다. 동굴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림자들이 진짜라고 믿었기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제대로 실체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정화의 동굴을 거친 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허상의 그림자를 쫓으며 분주하게 세속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스스로를 자신만의 동굴 속에 가두고 단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내면의 동굴로 들어가도록 하자. 그곳에서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을 기다리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 영적 동굴 안에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신다.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2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 유도, 조구함

사실,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방심한 건 아닌데, 아,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여태까지 잡아 본 상대 중에 가장 강했어요. 정말 빈틈이 없었고, 몇 번의 찬스가 생겼을 때도 방어해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선수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리우 올림픽)는 노메달이 제가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준 이유라면, 지금 은메달은 또 한번 도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은메달 따고 은퇴하기 너무 아쉬워서, 파리 올림픽까지 한 번 해보려고요.



사진출처: 경향신문(AP연합뉴스)

사실 무조건 이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기고 이겨서 금메달까지 따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이자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구함 선수는 승리보다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준결승 경기 도중 상대 선수 손에 쥐가 났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서 이겨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시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구함 선수는 상대가 손을 풀도록 기다려주고, 공격할 때도, 본인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는 여건임에도, 상대의 아픈 손을 공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만난 상대에게 연장 승부 끝에 패했을 때는, 그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주며 인정해 주었고 상대도 감사해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내가 한 최선과 열심을 상대도 다했음을 알기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었습니다.

## 태권도, 이다빈

준비가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은메달에서 멈춘 것을 보면, 제가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간절함이 조금 덜했거나 어느 부분에서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제가 한 만큼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림픽이 끝난 것에 대해서 후련함도 있었고, 상대를 축하해 줘야 하는 것도 맞는 거기 때문에, 밝은 미소로 상대를 축하해 주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내려올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긴장감이나 비장함 대신 방실방실 웃는 얼굴을 보여준 이다빈 선수, 경기를 이겼을 때는 자신의 승리에만 심취하기보다 패한 상대를 위로하고, 졌을 때는 속상해하거나 분해하기보다 웃으며 상대를 축하해 주고 손가락 '따봉'으로 추켜 세워주었습니다. 이다빈 선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계란 것은,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구나'라는 부정적 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긍정적 선이기도 합니다.

조구함 선수도, 이다빈 선수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긍정과 존중감이 큰 만큼,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감도 커집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한다는 자신감,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교만함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존감이기에, 상대에 대한 업신여김이나 미움 없이 똑같이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 배구, 여자 배구팀

끝까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경, 예선 일본전 후

오늘 경기는 많은 분들이 볼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희한테는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아직 2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바라는 거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경, 8강 터키전 후  
처음에는 서브를 때릴 때 언니들이 자신 있게 때리라 해서 자신 있게 때렸고, -박은진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라고, 너 공격하러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계속 옆에서 이제 저를 북돋아 줘서 너무 좋았고 진짜 눈물 났어요. -박정아

12명이, 한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같이 하면, 그게 힘이 워낙 커진다는 거를, 저희끼리도 실감을 하고 있고. -양효진

잡아주는 언니 있고, 때려주는 언니들 있고, 후배들 있으니까, 저 또한 마음 편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염혜선  
모두가 자매처럼 뭉쳐 아주 특별한 힘을 내고 있다. 이 힘으로 우리는 한 계단씩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바리니 감독



사진출처: 연합뉴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를, 당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삶을 만들어갑니다. 나 자신을 실현하고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나실현', '나사랑'의 길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이루려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오직 공동체적인 '우리'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통해, 하느님과 이웃과의 공동체가 실현되며, 그 순간 '나실현' 또한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나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때, 무리 안에서 나만 잘 나기보다 나로 인하여 모두가 빛나도록 조화로운 태도를 가질 때, '나와 '우리는' 동시에 실현됩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오지만, 제도적 교회 안에만 한정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에 하느님은 함께하십니다.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삶은,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세상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와도(하느님께서 '모두'를 부르셨으니),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이, 바로 선교하는 것이고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노력과 관계들, 즉 스포츠, 축제, 개인적 만남, 참된 인간관계 등등은 단순히 인간적인 현실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내용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그것들이 보여 주는 아름다움, 무조건성, 깊이, 그리고 선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또 다른 실재를 상징한다.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다. 생활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사랑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가진 그대로 인간의 사랑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또 한 또 다른 큰 사랑, 또 다른 큰 축제, 또 다른 큰 열광에 관한 비유이다. 하느님의 은총은, 여기서는 변혁을 가져오고, 저기서는 정화하고, 정의롭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과의 궁극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속적인 현실과 융합한다. -레오나르도 보프, 해방하는 은총



교구장 동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금경축**

일시: 9월 29일(수) 11:00  
 장소: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교구/본당**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9월 28일(화) 11: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9월 기도모임**

일시: 9월 27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 확진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일터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언어 소통으로 인해 선제검사나 백신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미등록 외국인포함)들을 위해 나라별 통역사를 채용하여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키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타**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 대학'

원서접수: 9월 10일(금)~10월 4일(월)

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및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직원 채용**

분야: 사무직 0명, 노무직 0명(조리 0명, 경비 0명), 전교기구 0명

제출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접수: 10월 29일(금) 14:00까지(서류 함께)

문의: E-메일 [mano@cbck.kr](mailto:mano@cbck.kr)

전교기구: [pmsk@pmsk.net](mailto:pmsk@pmsk.net)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0월 3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a href="mailto:korvocation@columban.or.kr">korvocation@columban.or.kr</a>	대상: (만)19세~35세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도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스킨  
 힐데비누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 산호동본당 사무장 모집

접수: 10월 3일(주일)까지  
 문의: 본당 사무실 055·241·6748  
 ※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하십시오.  
 “교구 법원은 신자들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010·7123·4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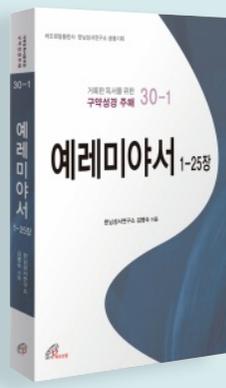


### 예레미야서 1-25장

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30-1

이 책은 예레미야서 입문과 1-25장의 주해를 담고 있다. 입문을 통해 예레미야서의 저자와 시대 배경, 신학 배경과 문학적·구조적 특징, 성경 전승들과의 관계, 중심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다. 1-25장 각 구절의 주해는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어 거룩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잠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김명숙



##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 모세의 사명(탈출 2,23-4,17)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지금 우리는 미디안 땅에 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정착한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장인의 양 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구하고자 이집트인을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곳 미디안 땅까지 도망쳐와야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집트에서의 모든 일을 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의 처지에도 눈을 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모세가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롭게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가 죽자 하느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탈출기 3,1-4,17과 6,2-13은 모세의 '소명사화'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소명사화는 어떤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는 과정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전개됩니다. 부르시는 분(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천사)의 소개와 인사에 이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이는 그것에 대해 이를 제기합니다. 곧, 자신이 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어서 하느님의 도우심에 대한 보증이 주어지며, 때로는 파견을 확인하는 표지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 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갔을 때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호렙산은 모세오경의 다른 곳에서는 시나이산으로 일컬어집니다. 시나이산의 실제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예벨 무사라고 하는 산을 성경의 시나이산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벨 무사는 미디안 땅에서 양 떼를 이끌고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양 떼를 이끌고 갔던 호렙산은 미디안 땅, 곧 아카바만 동쪽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산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모세의 소명사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산에서 불타는 떨기(히브리어로 '제네')를 보았습니다.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자 하느님께서 떨기 한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소개 하십니다(탈출 3,6).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그의 동족을 구해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사명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가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짓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에 지치고 절망한 이들을 설득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을 향해 일어서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명은 파라오에게 가서 그를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집트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 모두 뛰어난 설득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섯 번이나 자신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자신이 입도, 혀도 무딘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당신의 이름(야훼)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워주시며, 당신께서 모세를 파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두 가지 표징(뱀으로 변하는 지팡이와 나병 든 손의 치유)을 주십니다. 그제야 모세는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락하고, 장인 이트로에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사십 년을 보낸 후 여든 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탈출 7,7 참조).

